

근대 벽지의
기원과 한국 근대
벽지디자인의
고유성: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와 대한제국
시대를 중심으로
The Origins of
Korean Modern
Wallpaper and
the Uniqueness
of Its Design:
A Comparative
Study of the
19th-Century
British Victorian
Era and the
Korean Empire
Period

공지현
Gong Jihyun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전공
BFA Program, Visual Communication Design,
Hongik University

- 서론
- 근대 벽지디자인의 등장과 배경
 - 벽지의 기원과 근대 벽지 디자인의 등장
 - 실내장식 요소로서 벽지 도입과정과 배경
 - 영국 근대 실내장식의 도입과 벽지디자인
 - 한국 근대 실내장식의 도입과 벽지디자인
- 19세기 영국과 한국의 벽지디자인 비교
 - 영국 빅토리아시대의 벽지디자인 분석
 - 대한제국 시대의 벽지디자인 분석
 - 한국 근대 벽지디자인의 고유성
- 결론

지도교수: 박지나
Supervisor: Park Jina

투고일 2024년 6월 30일 / 심사일 2024년 7월 22일 / 게재확정일 2024년 8월 5일 / 게재일 2024년 8월 30일
Received Date 30 June, 2024 / Reviewed Date 22 July, 2024 / Accepted Date 5 Aug, 2024 / Publishing Date 30
Aug, 2024 / p-ISSN. 2765-2572 / e-ISSN. 2765-7825

1. 서론

한국 전통 디자인을 현대 디자인에 적용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전통 문양이나 전통 벽지 패턴의 활용이다. 최근 특히 국제적인 관심을 받는 K-POP의 아트 디렉팅이나 브랜딩 과정에서도 전통 문양과 벽지의 패턴을 여러 매체와 화면에 사용한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기 본격적으로 시작된 근대 벽지와 대한제국 시기의 벽지디자인에 사용된 색상, 패턴, 모티프 등을 비교문화사적 관점으로 살펴보고, 서구화 과정에서도 독자적으로 발전된 부분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근대기 한국 전통 실내 디자인에 사용된 벽지디자인의 특성(조형, 모티프, 색) 등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한국적 고유성을 찾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 범위는 19세기 근대 디자인이 시작되었던 영국 빅토리아 시대와 같은 시기인 개항기 대한제국 시대이며, 이 시기의 실내장식의 요소로서 한국의 근대 벽지디자인과 그 패턴의 특성을 비교문화연구의 입장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이며, 주요 선행연구로는 이지영, (2017). 「근대기 실내장식 요소로서 벽지에 대한 인식과 디자인 전개에 관한 동서양 비교 연구: 1900년을 전후 영국과 한국의 벽지 사례를 중심으로」,¹⁾ 박남진, (2022). 「초기 모던 디자인에 나타난 동서양 보편적 가치와 디자인 정신에 대한 연구」²⁾가 있다.

- 1) 이지영, 「근대기 실내장식요소로서 벽지에 대한 인식과 디자인 전개에 관한 동서양 비교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6(5), 2017
- 2) 박남진, 「초기 모던 디자인에 나타난 동서양 보편적 가치와 디자인 정신에 대한 연구」, 전시디자인연구 19(2), 2022

Introduction

When integrating traditional Korean design into modern design, it is essential to incorporate traditional patterns or wallpaper patterns. Examples of this integration can be seen in various media and screens in the art direction or branding process of K-POP, a genre that has recently gained international attention. In this study, we aim to analyze the colors, patterns, and motifs of wallpapers used in modern wallpaper, which originated during the Victorian era in 19th century England, and in wallpaper design during the Korean Empire when Westernization began. The study will focus on identifying Korean uniqueness in modern Korean traditional interior design and commonalities in the shapes, motifs, and colors used, particularly during the opening of ports in Korea, which coincided with the British Victorian era when modern design began in the 19th century.

The research method involves a literature review. Previous studies such as Lee Jiyoung's "A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on the Perception and Design Development of Wallpaper as an Interior Decoration Element in the Modern Era" (2017) and Park Namjin's "Universal Values of the East and West in Early Modern Design and a Study on the Spirit of Design" (2022) will also be considered.

2. 근대 벽지디자인의 도입과정과 배경

2.1. 벽지의 기원과 근대 벽지디자인의 등장

벽지는 2세기 중국에서의 종이제조기술 발달과 6세기 말부터 7세기 초의 목판 인쇄기술 발달을 미루어 볼 때, 중국에서 유래했음을 추측하게 한다. 벽지디자인 역시 기원전 200년경 중국에서 박엽지에 손으로 모양을 그려 궁전의 벽화로 사용하였다는 기록에 근거하여,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중국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³⁾

유럽 벽지 인쇄는 실내 장식물로서 종이 벽지가 17세기경에 등장했으나 주로 부유층의 기호품으로 사용되었으며, 18세기에 이르러서야 벽지의 중산층에서의 수요가 증가했고, 패턴 벽지 유행과 더불어 중국, 인도 스타일의 벽지가 유행했다. 19세기에는 롤러 프린터를 통한 벽지 대량생산이 가능해졌고 벽지가 대중화되었다. 20세기에 이르러서는 '실내 디자인의 필수요소로서의 벽지'가 서구 전역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⁴⁾

한국의 근대 장식으로서 벽지의 역사는 19세기에 관찰되기 시작한다. 18세기 이전에는 궁궐을 건축할 때 장식 목적의 도배가 능화지⁵⁾를 활용하여 이루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19세기에 이르러서야 장식 목적의 도배로 발전하여 다양한 색상과 금, 은박을 입히는 등 과감한



[그림 1] William Morris's Wallpaper Design, 1896(출처: 윌리엄 모리스 갤러리)

3) 임선양, 「서양의 풍경벽지 디자인에 관한 연구」, 박사논문, (한양대학교, 2003), p.29

4) 이지영, 같은 논문, p.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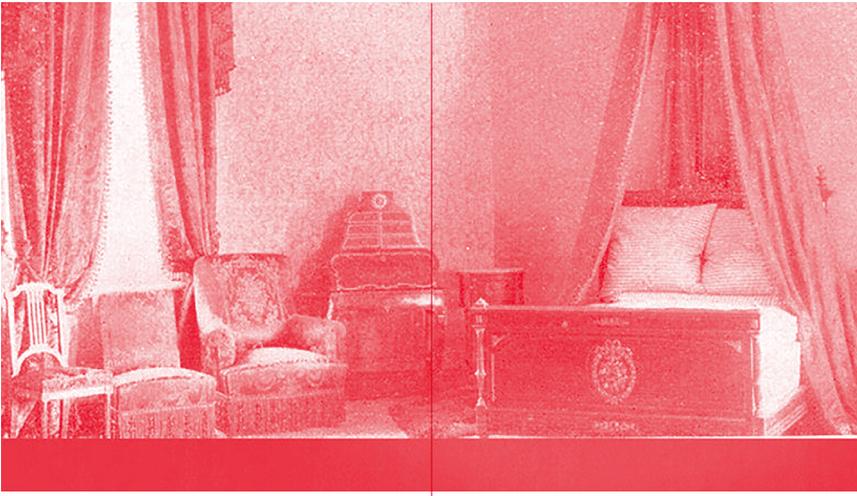
5) 능화지(菱花紙)는 마름모(菱), 즉 화면의 대각선 사방으로 문양이 반복되도록 디자인된 종이를 말한다. 능화지의 문양은 문양판 위에 종이를 올리고 밀랍으로 문질러서 문양이 요철로 표현되는 방식과 능화판에 안료를 묻히고 종이를 찍어서 문양을 인쇄하는 방식이 있다. 전자는 책을 상하지 않게 하는 책의(冊衣)가 되고, 후자는 도배에 소요되는 벽지가 된다. 장필규, 「용어와 건축: 능화지(菱花紙)와 도배」, vol.62, no.10, Sept, 2018, p.72



[그림 2] Castle Howard Turquoise Drawing Room, 1894(출처: 위키피디아 커먼스)



[그림 3] Castle Howard Lady Georgianas' Dressing Room, 1894(출처: 위키피디아 커먼스)



[그림 4] 돈덕전 침실(출처: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그림 5] 덕수궁 석조전 중앙홀(출처: 문화재청)

장식이 벽지디자인에 사용되기 시작되었다. 또한 20세기에 들어서 장식으로서 벽지 사용이 대중화되게 되었는데, 이때 한국 최초의 벽지생산기업인 '대동벽지'가 설립이 벽지 보급에 큰 역할을 했다.

2.2. 실내 장식 요소로서 벽지 도입과정과 배경

2.2.1. 영국 근대 실내장식의 도입과 벽지 디자인

유럽에서 17세기부터 실내 장식물로서 등장한 종이 벽지는 등장 당시에는 부유층의 기호품으로만 여겨져 사회 전 계층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는 못했다. 산업 혁명기의 영향으로 19세기에 이르러서야 제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영국을 중심으로 금속판 롤러 프린터를 통한 벽지 대량생산이 가능해졌다. 근대 디자인의 아버지이자 예술공예운동으로 잘 알려진 모리스(William Morris, 1834-1896)는 모리스 상사(Morris & Co.(1875-1940)를 설립해 그의 동료들과 <사진 1>처럼 식물 패턴 무늬의 벽지를 생산했다. 당시의 실내장식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주택으로는 레드하우스를 설계한 필립 웹(Philip Webb)의 <Castle Howard, 1894>가 있으며, [그림 2], [그림 3]처럼 모리스가 디자인한 벽지와 직물들을 다수 살펴볼 수 있다.⁶⁾ 이 시기는 중산층에서 벽지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였고, 패턴 벽지 유행과 더불어 중국, 인도 벽지가 유행했고, 이어서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아르누보 스타일의 벽지가 대중화되었다.

2.2.2. 한국 근대 실내장식의 도입과 벽지 디자인

한국 벽지 역사는 중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나, 18세기 이전의 구체적인 기록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18세기경 궁궐건축에 능화지를 벽장식에 활용한 것이 최초로

여겨지며, 19세기에는 장식 목적에 도배로 발전하여 다양한 색상과 금, 은박을 입히는 등 과감한 장식이 벽지디자인에 사용되었다.⁷⁾

산업혁명으로 벽지가 대량 생산되고 보급되었던 영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20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장식으로서 벽지 사용이 대중화되게 되었다. 이 시기 최초의 벽지 생산기업인 '대동벽지'가 설립됨으로써 벽지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보급할 수 있었다. 임창복(2011)에 따르면 '실학의 등장'으로 서양인들과 접촉하게 된 학자들이 일찍이 서양식 주거문화를 접하고, 그 경험이 상류계층 양반들의 주거 공간과 그 장식에 향을 끼치게 되며 벽지디자인의 도입을 촉진 시켰다. 이는 구학문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아와 세계에 발을 딛고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상을 품고 있었던 실학자들에게 실내 장식에 대한 인식 변화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또한 서민이나 양반층보다 당시 왕실에서 서양 궁정 사회의 실생활과 의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도록 했으며, 서양인을 고용하는 형태도 이루어졌다.⁸⁾ 아관파천 이후 고종 내외가 경운궁으로 환궁하고, 그 경험은 중건한 [그림 5]의 석조전의 실내장식 디자인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림 4]는 대한제국시기 가장 화려한 양관이었던 덕수궁 돈덕전의 침실이다. 특히 명성황후의 신임을 얻어 일하던 '손탁(Marie Antoinette Sontag, 1854-1922)'은 서양의 생활문화, 가구와 같은 실내 디자인이 받아들여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명성황후는 고종과 황후가 거주하던 궁궐 내의 응접실과

7) 김정근, 『빅토리안 스타일 주택 실내 디자인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Vol.18, No.4, 2005, p.28

8) 임창복, 『한국의 주택, 그 유형과 변천사』, 돌베개, 2011, p.57

6) 이지영, 같은 논문, p.110



[그림 6] 1896년 실버스튜디오사의 벽지(출처: Museum of Domestic Design & Architecture)



[그림 7] 1900년 실버스튜디오사의 벽지(출처: Museum of Domestic Design & Architecture)



[그림 8] 1895년 실버스튜디오사의 벽지(출처: Museum of Domestic Design & Architecture)

침실을 서양식으로 꾸미게⁹⁾ 했으며, 대표 사교공간인 '손탁호텔'¹⁰⁾을 세우고 운영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전통 한국식 실내 장식에서 서양식 인테리어의 디자인적 특징들이 국내에 대거 유입되었다.¹¹⁾ 전통 한국 디자인의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던 왕실의 생활공간에 서양의 생활문화와 실내 디자인이 들어오며, 동서양의 스타일이 혼재된 형태가 나타났다. 이 상황에서 벽지디자인이 한국의 전통적 공간감과 이국적이면서 화려한 디자인이 특징인 유럽 장식물과 가구들을 이어주어 실내 분위기를 조화롭게 만들어 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¹²⁾

3. 19세기 영국과 한국의 벽지 디자인 비교

3.1. 영국 빅토리아시대의 벽지디자인 분석

영국과 한국의 근대 벽지의 구체적인 사료를 분석해 보자. 먼저 [그림 6]의 벽지는 1896년대 중반 영국의 아르누보 양식의 특징을 강하게 보여주는 벽지이다. 양귀비꽃을 모티브로 한 그래픽이 평면적인 형태의 꽃잎과 곡선형을 띠고 있는 잎사귀로 구성되어 있고, 꽃과 잎을 하나의 기본 단위로 하여 좌우 대칭시킨 문양이 반복되며, 가로 방향으로 엇갈려 쌓인 장방형 구성을 보여준다. [그림 7]의 벽지는 세기말 영국의 아르누보 양식을 잘 보여주는 디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좌우 대칭으로 그려진 섬세하기 보다는 단순화된 꽃과 잎사귀 그래픽의 주변부로 또한 대칭으로 그려진 곡선들이 감싸듯 연결되어 있다. 장방형 형태로 이루어졌으나, [그림 6]의 사료보다 앞의 형태가 단순화되어 표현되었다. [그림 8]의

벽지는 반복 패턴을 숨기기 위해 복잡함과 정교한 표현이 강하게 나타난다. 각 그래픽 간의 경계 없이 반복되는 비대칭형의 장미 다발, 그리고 평면적인 아칸사스 잎으로 구성된 문양이 장방형으로 전개된 방식으로 디자인되었다. 패턴을 사용했음에 명백하나, 특징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영국의 벽지 디자인에서는 패턴 전개 방식이 대칭과 반복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³⁾

3.2. 대한제국 시대의 벽지디자인 분석

한국의 근대 장식 벽지 디자인은 영국의 경우처럼 대중의 취향을 반영하였다기보다는, 사용자의 신분과 지위를 고려하여 상징성의 표현이 우선시되었다. 이러한 상징성은 용, 문자, 봉황 등의 의미들이 모티프들의 선정에 영향을 끼치고, 그 모티프들이 추상화되거나 원형, 마름모 등으로 단순화 또는 패턴으로 표현되었다.

[그림 9]의 벽지 디자인에서는 한 단위 문양이 각각의 경계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단순한 반복성이 나타나는 패턴을 보여주며 특히 사선 방향으로 반복되는 패턴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10]의 벽지는 1848년 건립 당시에 도배된 것으로 추정되는, 창덕궁 석복헌에서 발견된 것이다. 오각형과 유사한 형태의 그래픽으로 이루어진 패턴을 하나의 기본단위로 삼고, 문자로 이루어진 문양을 중심에 두어 주변으로 다섯 개의 박쥐 문양이 회전하여 반복되어 나타난다. "박쥐는 중국어로 '복(福)'과 '복(蝠)'이 같은 음으로 발음된다는 데에서 애용되는 문양이며, 새끼를 많이 낳아 다남(多男)과 장수를 상징하는 영물로 인식했다."¹⁴⁾

9) 김은주, 『석조전-잇혀진 대한제국의 황궁』, 민속원, 2014, p.61

10) https://en.wikipedia.org/wiki/Sontag_Hotel, (2024.6.16)

11) 이지영, 같은 논문, p.111

12) 이지영, 같은 논문, p.112

13) <http://www.moda.mdx.ac.uk>, (2024.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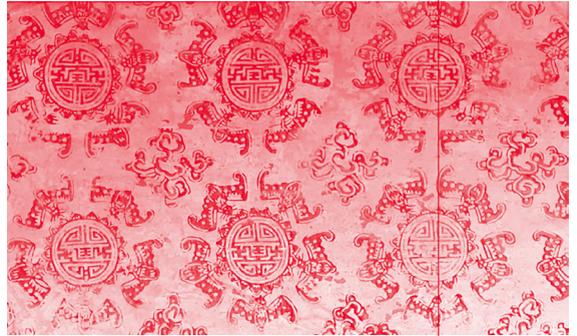
14) 유영렬, 『한국문화사 9장 옷차림과 치장의 변천』, 국사편찬위원회, 2016, p.112

이렇게 다섯 개의 박쥐가 원형을 이루는 수복문은 하나의 모티프를 어떻게 반복하여 사용했는가 하는 해당 시대의 디자인적인 관점을 알아봄과 더불어 조선시대 사람들의 영물에 대한 믿음을 엿볼 수 있는 사료이다. [그림 11]의 벽지 또한 창덕궁 석복헌에 발린 것으로, 일제강점기에 도배된 것으로 추정된다. 타원형의 형태를 한 문양을 중심으로 사선 방향의 격자형 장식 테두리가 둘러싸고 있다. 마름모 형태의 한 패턴 기본단위가 사방으로 연속되는 다이아몬드 구성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앞서 소개한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패턴보다 하나의 기본단위 반복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영국의 벽지 디자인에서는 패턴 전개 방식이 대칭과 반복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그 반복되는 패턴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나, 한국의 경우 단위 문양의 경계가 명확하고, 단순한 반복과 특히 사방대칭 연속 패턴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대 초기 영국과 한국은 그 시작점은 독자적이나 벽지를 주요한 실내 디자인의 '장식'으로 간주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벽지의 패턴과 디자인, 그 패턴의 활용에 있어서는 각 문화권에서 독자적으로 발전되었다. 당시에 장식을 목적으로 한 디자인 된 벽지를 사용하고 즐기는 계층이 상류계층의 문화에서 서민의 보편적인 문화로 계승되었다는 점은 공통점이다. 그러나 영국의 벽지는 주로 식물을 모티브로 한 그래픽을 이용하여, 유기적 형태와 구성을 추구했던 것에 반해 한국의 벽지 디자인은 용과 봉황, 문자 등의 사용에서 추측할 수 있듯, 서양의 벽지보다 그래픽의 사용에 있어서 심미적인 부분보다 거기 담긴 함의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9] 운현궁 벽지 패턴(출처: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그림 10] 창덕궁 낙선재 석복헌 천장 도배지 - 수복문(출처: 국가유산청)



[그림 11] 국가유산청, 창덕궁 낙선재 석복헌 천장 도배지 - 귀갑문(출처: 국가유산청)

3.3. 벽지의 색상에서 나타나는 한국 근대 벽지 디자인의 고유성

색상에서 나타나는 한국 근대 벽지디자인의 고유성에 대해 살펴보자. 전통적인 한국 색채 관념은 기본적으로 ‘의미론적 색채관’이 기본 배경에 깔려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의 민간 의식에서는 ‘음양오행’¹⁵⁾ 사상이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색채 선호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근대의 벽지디자인에 있어서 색상의 배치와 사용 역시, 모두 의미론적 색채 관에서 출발했다.¹⁶⁾ 오행설은 금, 수, 목, 화, 토 (金, 水, 木, 火, 土)의 다섯 가지가 음양의 원리에 따라 행함으로써 우주 만물이 소멸하며, 생성된다. 그리고 오행의 각 기에 해당하는 ‘기운 색’을 정하고 이를 ‘오방색’이라 한다. ‘오방색’은 청색, 녹색, 백색, 금색, 적색으로 각각의 색이 오행의 고유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음양오행설과 의미론적 색채관이 근대 한국의 전통적 색채 선호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으며, 인간과 자연을 매개하고, 음양의 균형을 이루며, 그 부족한 기운을 오방색의 사용을 보완하기 위해, 해당하는 색상을 생활 곳곳에 적용하여 그 용도에 맞게 사용했다.¹⁷⁾ 오방색은 궁궐이나 사찰의 단청, 그리고 색동저고리, 전통 장신구인 오방낭자 등에서 사용되었다. 모든 궁궐 양식에서 오방색과 문양이

사용되었다. 장식용 벽지 역시 서양의 사료처럼 단순한 미의 기준에 따라 색을 선별한 것이 아닌, 오행의 의미론적 색채관, 음양오행의 원리에 의한 보완과 보존의 의미에서 색을 선별하고, 그에 따라 한국만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사료들을 통해 근대 한국이 벽지의 문양뿐 아니라 색의 선호 또한 서구와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 한국 전통 실내 벽지 디자인이 독자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근대 벽지 디자인의 기원과 한국 근대 벽지 디자인의 고유성에 대하여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와 대한제국 시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 근대 벽지 디자인은 19세기 산업혁명과 기술의 발전과 개항기의 서구문화 유입으로 등장했지만, 개인의 기호나 미적 취향이 우선되는 영국의 벽지 디자인과 달리, 각 문양과 배치의 상징성과 그 의례에 적합한 사용법이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대한제국 시기 근대 벽지 디자인은 영국과 같은 서양 근대 벽지와 비교해서 패턴의 형태, 전개 방식, 그래픽 요소와 색상 사용의 변천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영국과 한국 모두 자연물을 매개로 하여 그래픽 모티프를 만들어내고 패턴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은 같으나, 영국에서의 사례는 주로 대칭과 반복이 그 효과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선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의 사례에서는 좀 더 하나의 기본 단위의 반복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그 문양의 형태와 반복의 전개에서 대한제국 시대 한국 고유의 믿음과 정서가 드러나는 수복문, 귀갑문 등의 형상을 찾아볼 수가 있다. 특히 색채와 문양의 활용에서 음양오행 사상과 다양한 자연과 공존하는 활용법이 두드러지는데,

15) 음양오행설은 인간이나 우주의 이분법적인 모든 현상이 양과 음의 쌍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라는 이론으로 위와 아래, 높고 낮음, 남자와 여자, 해와 들의 쌍으로 묶는데, 이들은 대립적이지만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 양과 음이 수축하고 확장됨에 따라 우주의 운명이 결정되며, 이러한 양과 음이 생, 노, 병, 사의 네 가지 기운에 따라 확장과 수축을 함으로써 다섯 가지 오행이 나타난다는 것이 오행설이다.

16) 이지영, 「한국 근대기 왕실 생활공간 내 도배지의 실내디자인사적 의미와 디자인 재현 연구2」, 『Archives of Design Research』, 32(2), (한국디자인학회, 2019), p.16, p.5

17) <음양오행설 (陰陽五行說)>,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는 타 국가와 사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고유함을 지니며, 한국 근대 벽지 디자인이 자체의 독자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서 한국 전통 실내 장식의 보존 필요성과 그 명맥을 이어 나가기 위한 국가와 개인 간의 노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으며, 사료 분석을 통해 어떤 전통 가옥과 궁궐에서 각각 이유 있는 무늬와 색상의 벽지 디자인이 사용되었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이는 디자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한국 근대의 민족의식이나 선호도가 반영된 결과이다. 또한 가구나 장식품뿐만 아니라 실내 디자인의 근간이 되는 벽지 디자인 분석을 통하여 한국 전통 실내 디자인의 뿌리 깊은 토대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이는 추후 다양한 디자인 활동에 있어 이 연구가 참고 자료와 다양한 발상의 활용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❷

참고문헌

- 김은주, (2014), 『석조전-잊혀진 대한제국의 황궁』, 민속원
- 유영렬, (2016), 『한국문화사9장 옷차림과 치장의 변천』, 국사편찬위원회
- 임창복, (2011), 『한국의 주택, 그 유형과 변천사』, 돌베개
- 김정근, (2005), 『빅토리안 스타일 주택 실내 디자인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Vol.18, No.4
- 박남진, (2022), 『초기 모던 디자인에 나타난 동서양 보편적 가치와 디자인 정신에 대한 연구』, 『전시디자인연구』, 19(2)
- 이경희, (2001), 『윌리엄 모리스의 텍스타일 디자인에 관한 연구』, 『Archives of Design Research』, 한국디자인학회
- 이지영, (2017), 『근대기 실내장식요소로서 벽지에 대한 인식과 디자인 전개에 관한 동서양 비교 연구: 1900년을 전후 영국과 한국의 벽지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6(5)
- 이지영, (2019), 『한국 근대기 왕실 생활공간 내 도배지의 실내디자인사적 의미와 디자인 재현 연구2』, 『Archives of Design Research』, 32(2), 한국디자인학회
- 임선양, (2003), 『서양의 풍경벽지 디자인에 관한 연구』, 박사논문, 한양대학교
- 장필구, (2018), 『용어와 건축: 능화지(菱花紙)와 도배』, vol. 62, no.10, Sept
- <음양오행설 (陰陽五行說)>,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https://en.wikipedia.org/wiki/Sontag_Hotel
- <http://www.moda.mdx.ac.uk>